

중국 사회주의의 이념 갈등

— 『人民日報』 속의 毛식 평등주의와 鄧식 효율주의 —

鄭 仁 和

〈目 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V. 갈등 전략 |
| II. 갈등 당사자 | VI. 平等과 效率의 調和 |
| III. 갈등 양상 | VII. 결론: 毛 시대의 갈등이 보여주는 含意 |
| IV. 갈등의 원인 | |
| 1. 당과 행정의 역할 인식에 대한 차이 | 1. 권력 투쟁 수단으로서의 이데올로기 |
| 2.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 | 2. 모순 해결로서의 정책과 理念으로서의 정책 |
| 3. 문제 해결 방법의 차이 | |

I. 들어가는 말

중국 행정의 특징 중 하나는 毛식 평등주의와 鄧식 효율주의를 기본 축으로 한 이념과 정책의 갈등 현상이다. 그러나 毛이후 鄧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 세력이 주도권을 잡는 70년대 후반부터는 毛식 이데올로기가 퇴조하고, 鄧의 效率主義에 입각한 정치-경제 체제의 일대 개혁이 시도된다. 黨과 정부의 분리·黨과 기업의 분리 등에 의한 分權化와 민주법제의 정비를 통한 정책결정의 제도화 그리고 인사제도의 개혁 등이 정치체제 개혁의 주요 내용이라면, 市場 경제의 도입에 의한 상품경제체제의 구축과 소유제의 개혁·농촌과 기업의 자율성 확대와 경영제도의 다양화·개방주와 개방도시의 지정에 의한 경제 개방 등이 경제 체제 개혁의 주요 골자이다.

체제 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룬 중국 공산당의 당내 관료집단 내부에서는 그러나 개혁의 진행과 이에 따른 정책의 오류(물가고·실업·관리 부패·범죄의 증가·상대적 빈곤감의 생성 등등)가 발생

함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와 이념인 평등주의의 고수를 내세우는 보수 세력과 급진적인 개혁 개방을 표방하는 개혁 세력 사이에 갈등이 야기된다. 한편, 경제적 효율에 대한 기대의 증대는 정치적 욕구의 증대도 가져와 국민들 사이에는 정치적 참여——서구 자본주의적 정치 체제인 多黨制·직접 선거·의회주의 등의 도입——에 대한 욕구가 증폭되며, 이에 따라 당과 국민간에는 參與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야기된다. 1989년의 천안문 사건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개혁에 따른 정책 변동과 이 정책 변동에 수반하는 정책 오류의 발생, 그리고 이 정책 오류의 원인과 문제 해결 방법을 둘러싼 갈등의 연속이 중국 사회주의 40년의 특징적 정치-행정 현상이다. 그러므로 중국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을 이해하고 중국 정치-행정현상을 설명하며 나아가 중국 사회주의의 전개 방향을 예측하는 데에는 우선 중국 정치경제를 움직이는 기본 축인 毛식 평등주의와 鄧식 효율주의의 갈등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중국 정치 현상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毛식 평등주의와 鄧식 효율주의의 갈등을 분석해 본다.

분석 방법

毛 행정의 갈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71년 6월—72년 5월, 73년 6월—74년 5월 그리고 75년 6월—76년 5월까지의 『人民日報』를 조사하였다. 제 1면 사설 또는 논설에서 매월 1일과 15일 각 한개씩 모두 72개의 논설을 표본 추출하여, ‘누가 무엇 때문에 무슨 생각과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갈등하는가’를 기준으로 분석을 가하였다. 이 시기의 『人民日報』를 선택한 것은 이 시기가 毛가 사망하는 76년 9월 이전의 약 3년간이라는 점과, 또 毛를 중심으로 하는 理論派의 카운터 엘리트인 鄧이 숙청되는 계기가 된 天安門 事件이 발생하는 1976년 이전의 몇년간이 중국 관료 집단 내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毛 시대와 鄧 시대를 각각 71—76년과 79—89년으로 나누어 이 두 시기의 『人民日報』 사설과 논설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毛 시대의 표본 72개와 鄧 시대의 표본 240개 등 표본 312개) 필요한 변

수를 선정하였다¹⁾. 이 변수가 『人民日報』에서 어떻게 취급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주요 인용을 4점, 다수 인용을 3점, 2회 인용을 2점, 1회 인용을 1점, 그리고 전혀 인용이 없는 경우를 0점으로 서열 척도화하여 분석하였다(표-2, 표-3).

분석 결과 毛澤東을 중심으로 平等主義를 내세우는 정치 엘리트(이를 理論派라 한다)와 劉少奇·鄧小平 등 毛의 노선에 반대하는 정치 관료들(이를 當權派라 한다)과의 갈등을 <표-1>과 같이 요약할 수 있었다.

II. 갈등 당사자

毛 행정에 있어 毛식 평등주의와 鄧식 효율주의라는 두 노선을 둘러싼 투쟁은, 毛를 중심으로 한 理論派와 劉少奇·彭德懷·彭眞·吳晗·鄧小平 등이 주축이 된 當權派 간의 투쟁이다. 이들 갈등 당사자는 중국 공산당의 창당 후 중국 혁명 과정에 참가하였던 혁명 1세대들로서 이념적 동질성을 유지하였으며, 58년의 대약진운동까지는 리더십 내부에 사회주의를 향한 기본정책에 합의가 이루어졌었다. 즉, 1949년 건국 이래 1950년대 후반까지는 중국의 지도층 내부에서 동질성과 공동 의식이 유지되고 이에 따라 이데올로기와 정책에 대한 합의가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大躍進運動의 실패와 文化大革命으로 이러한 동질성과 합의 형성 과정은 파괴되거나 변질되었다. 특히 大躍進運動의 실패로 毛澤東의 권위와 지도력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고, 또한 사회주의 건설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융통성이 상실됨에 따라서 정책 갈등은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된다. 이러한 양상이 1960년대 후반에는 권력 투쟁으로 발전되고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중국 사회의 여러 계층의 상반되는 이해 관계와 연결됨으로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III. 갈등 양상

1) 鄧 시대의 갈등현상 분석은 鄭仁和, 「中國의 이데올로기 갈등과 정책 변동」(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1) 제 4장을 볼 것.

毛는 계급모순의 해결에 의한 평등 사회의 구현을 그 이데올로기적 목표로 보며, 이의 실천 방법으로 自力更生·사상 교육·대중 운동·黨우위 체제의 유지에 의한 평등성과 효율성의 동시 제고를 내세운다. 한편 鄧小平·劉少奇 등 毛의 노선에 반대하는 黨僚들은 階級鬭爭 보다는 階級調和에 의한 생산력 발전을 목표로 잡고, 생산력 낙후의 해결에 의한 現代化建設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이 목표에 대한 수단으로 鄧이 내세우는 효율 방식은 물질적 인센티브제·시장메카니즘 활용·과학 기술 등이다.

(표-1 : 『人民日報』에 나타난 갈등 양상)

갈등당사자	理論派	當權派
이념	정치우위 平等主義	경제우위 實用主義
문제상황	계급 모순	물질적 수요와 생산력 낙후간의 모순
구호	“혁명으로 생산을 촉진하자!” “계급투쟁을 근간으로 삼자!”	「三項指示爲綱」
이론	階級鬭爭論, 繼續革命論	唯生產力論, 階級調和論, 黑貓白貓論
문제해결 방법	自力更生, 사상교육, 黨委의 지도, 대중운동	物質刺戟, 개혁개방
이념투쟁 전략	毛권위활용, 古典이용, 소련비판	毛권위활용
교육노선	農工兵의 학교	智育第一, 엘리트주의
경제발전	생산관계의 우선적 조정으로 생산력 발전 도모, 중공업우선	생산력우선, 농업우선
동기부여	심리적 보상, 이념적 인센티브	물질적 인센티브
분배방식	“多做工作, 少取報酬”	按勞分配
통제방법	중앙통제, 계획경제	시장메카니즘 활용

그런데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毛식 평등과 毛식 효율이 이론과는 달리 동시에 달성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즉, 毛식 평등은 어느 정도 달성되나 毛식 효율 운동은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毛는 자신의 이론인 階級鬭爭論·永久革命論을 내세워 정치우위의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성 제고를 기도하게 된다. 즉 毛는 차라리 효율을 희생할 망정, 평등은 희생시킬 수 없다는 입장에 선다. 이때, 毛식 효율 운동의 한계를 지적하고 鄧식 효율을 주장하는 반대 엘리트들은 필연적으로 毛주의자들과 중국의 기본 노선에 대

한 갈등을 벌이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이들 반대 엘리트들은 「走資派」란 이름이 붙여져, 노선 투쟁에서 숙청을 포함한 권력 투쟁의 양상으로 발전해 나간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1〉이다.

사회주의적 개조가 끝나는 56년에서 大躍進運動이 시작되는 58년까지의 노선 투쟁과, 文化大革命이 시작되는 66년 전후 부터 毛가 사망하는 76년까지의 이른바 紅과 專의 투쟁이 중국 행정에서 이러한 毛식 평등과 효율 및 鄧식 평등과 효율이 서로 갈등하는 시기이다. 단지 文化大革命을 전후한 중국 정치 리더십 내부의 갈등은 노선 투쟁에서 권력 투쟁의 양상으로 발전하는 특징이 있을 뿐, 毛 행정 시기의 갈등은 바로 평등과 효율이라는 두 이념을 둘러싼 毛와 鄧의 갈등이다. 그리고 중국의 政策, 특히 경제 정책은 효율위주의 정책과 평등위주의 정책 중 어느 한 정책의 집행에서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문제점이 노출될 때 이의 원인 귀인과 해결 방법의 차이로 인해 정책 결정자간에 생기는 갈등의 결과물이며, 이 갈등을 통하여 정책은 調整된다. 즉 일방적인 평등위주의 정책이나 효율위주의 정책이 집행되기 보다는 정책 결정자간의 「관료 정치」를 통해 타협의 產物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된다. 그런데 중국의 政策決定 過程은 일정한 절차와 경기 규칙에 따른다기보다는 정치 지도자의 권위와 인간 관계 등 非合理的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비제도화된 정책 과정’(人治)이므로 무대 뒤편에서의 갈등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국 행정을 이해하는 전제 조건이 된다.

毛 시대 전반을 통해 毛식 평등과 毛식 효율 위주의 경제 정책인 大躍進運動이 실패한 직후에 毛가 국가 주석직을 劉少奇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등, 毛식 평등과 효율에 반대하는 實務派에게 권력에서 밀려나는 시기를 제외하고 대체로 毛식 평등 위주의 정책이 집행된다. 毛식 평등 위주의 정책이 권력 투쟁과 병행하여 집행된 것이 바로 文化大革命이며 중국은 이 文化大革命이란 “大災難”을 분기점으로 하여 毛식 평등과 효율 위주의 행정에서 鄧식 평등·鄧식 효율 위주의 행정이란 제 2의 혁명을 시도하게 된다.

IV. 갈등의 원인

1. 당과 행정의 역할인식에 대한 차이

중국 사회주의 행정은 이미 공산당 창당 초기인 1920년대에 ‘리따자오’와 胡適(후쓰)의 논쟁에서 보듯, 행정이란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조직학습을 통한 부분적인 문제의 해결 과정으로 보지 않고, 체제 내외의 구조적 모순, 그러니까 계급 모순·생산 관계의 모순 등을 혁명을 통하여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毛는 毛思想의 기본 관점에 따라서, 「농업 합작화를 위한 한 변론과 현재의 계급 투쟁」(農業合作化的一場辯論和當前的階級鬭爭, 1955)·「십대 관계를 논함」(論十大關係, 1956)·「인민 내부의 모순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문제에 관하여」(關於正確處理人民內部矛盾的問題, 1957)등의 논문을 통해 계급 투쟁과 계속 혁명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人民日報』 제 1면 우측 상단 毛 語錄란에는 매일 毛 語錄이 실리며, 이 글의 분석 기간인 73년-76년 동안 『人民日報』의 語錄欄에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말은 “계급 투쟁을 주축으로 삼자!”(階級鬭爭爲綱!)·“혁명을 장악하고 생산을 촉진하자!” “당은 전 인민을 지도하는 핵심이다!” 등이다. 『毛澤東選集』을 인용하거나, 毛主席이 한 말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고딕체로 하며 이 고딕체가 『人民日報』 논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毛 시대에는 毛가 평균 2.46점 鄧이 0점이었으며 (黨의 권위를 인용한 점수는 0.47점, 마르크스-레닌을 인용한 점수는 0.71점), 鄧시대에는 毛를 인용한 점수가 0.92점, 鄧을 인용한 점수가 0.96점으로 나타났다 (黨의 권위를 인용한 점수는 0.92점, 마르크스 레닌을 인용한 점수는 0.44점). 鄧시대에도 『人民日報』에서 毛의 권위가 鄧의 그것과 비슷하게 나타남을 볼 때, 중국 사회주의에 있어 毛思想이라는 중국 이데올로기는 중국의 정치 행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표-2 : 『人民日報』의 권위 의존도〉

	毛시대	鄧시대
黨	0.47	0.92
毛	2.46	0.92
鄧	0.00	0.96
M-L	0.71	0.44

이는 『人民日報』가 의존하는 권위인 黨의 인용 평균 0.47점, 마르크스-레닌의 평균 0.71과 비교해 볼 때 毛사상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毛사상이 黨이나 마르크스-레닌주의보다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며 행정의 지도 이념으로 작용한다.

한편,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代行하는 黨²⁾은 이데올로기의 창출자로서, 창출된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간부가 관료화하기 쉬운 행정 관료를 통제하며,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균형을 조직하고 지도하고 동원하여 矛盾을 실천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만 가진 관료는 그 無階級意識性·無革命性 등으로 인해 黨의 통제 대상이 되며, 이렇게 하여 무산체급의 독재와 무산체급의 자율성이 확보되고 창의성·진취성·적극성이 개발될 때 생산력도 제고되어 ‘革命과 建設’, 즉 平等과 效率이 동시에 확보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양립 불가능한 가치가 사회주의에서는 이데올로기의 강조로 인하여 양립 가능하게 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내세우게 된다.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확보하는 이데올로기의 집행이므로, 정책 정향도 이러한 절대적 이데올로기의 제약 속에서 변화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면 중국 행정에 있어 정책 실패 또는 政策誤差로 생기는 모순은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진리인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정책 노선에서 逸脫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

이렇게 볼 때, 毛澤東 시대의 이데올로기 위주의 행정은 서구의 중속이론적 인식과 유사하고, 鄧小平시대의 경제성장 위주의 행정은 확산 이론적 인식에 가깝다³⁾. 또한 毛澤東 시대의 발전 전략은 균형 전략인데 반해 鄧小平 시대의 발전 전략은 불균형 전략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2.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

理論派는 중국이 당면한 문제 상황이 ‘階級矛盾’이라고 인식하는데 반하여 當權派는 중국의 현실을 ‘물질적 수요와 생산력 낙후간의

2) 「...中國共產黨是全中國人民的領導核心. 沒有這樣一個核心, 社會主義事業就不能 勝利.」毛澤東選集, 「中國共產黨是全中國人民的領導核心」(1957).

3) 徐鎮英, 「毛澤東의 정치 경제학과 4개 현대화 정책의 발전 이론 비교」, 「中國學論叢」 제 1집(고려대 중국학 연구회, 1988)을 참조.

矛盾'이라고 인식한다. 理論派의 이러한 현실 인식은 '계속혁명'·'정치 우위'(政治掛帥)·'평등주의'등 毛思想의 기본이념에 바탕을 둔 것인데 반하여, 當權派의 이념은 '실용주의'·'현실주의'·'경제 우위'·'상대적 평등주의' 등의 이념에 기초한 것이다.

毛 사상의 핵심인 「矛盾論」과 「實踐論」에 근거한 理論派의 문제 상황에 대한 현실 인식은 중국의 主要 矛盾을 生産力 未發展이 아니라, 노동계급 對 자본계급·사회주의의 길 對 자본주의의 길의 노선(兩個階級, 兩個路線, 兩個道路)의 존재로 보며, 계급 투쟁은 복잡성·지속성을 띠므로, 계속 혁명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 62년 당 제 8차 10중전회에서도 毛는,

“사회주의는 상당히 긴 역사의 한 단계이다. 사회주의란 이 역사의 단계 중에도 계급, 계급 모순과 계급 투쟁은 존재하고 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두 노선의 투쟁이 존재하며, 자본주의 복귀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을 함에 있어, 자본가 계급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데, 바로 공산당 내에 있는 것이다. 당내 자본주의 노선을 가는 黨權派인 것이다⁴⁾.”

라고 하며 反修正主義路線鬭爭을 전개한다⁴⁾. 또한 鄧小平을 “黨內 최대의 회개하려 들지 않는 走資派 鄧小平”(黨內最大的不肯悔改的走資派鄧小平)이라고 비판하고 “走資派가 아직도 자본주의를 내세우고 있다”(走資派還在走)라고 하며 走資派와의 투쟁을 독려하고 있다⁶⁾. 그리고 理論派는,

“과도기 전반에 걸쳐 계급 모순이 존재하고 있고, 무산계급과 자산계급의 계급 투쟁이 존재하고 있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두 길의 투쟁이 존재하고 있다. 10여년 간의 우리 당의 이 기본 이론과 기본 실천을 망각하면 빛나간 길로 나가게 될 것이다.”

4) 「人民日報」, 1976. 6. 11자, “毛주석의 중요 지시를 학습하여 鄧小平의 修正主義路을 비판하자”(學習毛主席重要指示 批判鄧小平修正主義路線).

5) 「人民日報」, “修正主義 반대.修正主義 방지를 위해 理論學習을 솔선수범하자”(1975. 6. 1일자); “反修防修를 견지하려면 走資派와 투쟁하여야 한다”(1976. 5. 19일자); “右傾飄案風에 대한 반격이 새 조류분 향하다”(1976. 5. 3); “修正主義批判과 整風을 결합하여 사상 학습을 깊이있게 하자”(1973. 7. 15일자)등을 참조.

라고 하며, 두 계급, 두 노선의 투쟁이 당의 기본 이론과 실천임을 천명한다. 毛의 이러한 현실 인식은 중국의 언론에서 그대로 인용되어 劉少奇·林彪 등 當權派와의 노선 갈등과 권력 투쟁에 이념적 論據로 작용한다. 黨 제10차 全國代表大會가 있는 직후인 1973년 10월 1일자 『人民日報』는 1면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毛의 상반신 사진을 실고 있으며 1·2면에 걸친 「紅旗」·「解放軍報」와의 공동 社說에서 간부와 군중이 學習班의 운영을 통한 毛思想의 학습을 통해 전면적인 反수정주의 노선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전 선동하고 있다. 思想과 정치 노선의 정확 여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思想上政治上的路線正確與否決定一體的)라는 毛의 말에 이어 동 사실은 다음과 같은 毛의 말을 고딕체로 인용한다.

“사회주의 사회는 상당히 긴 역사적 단계이다. 사회주의 역사 단계에서는 아직도 階級·階級矛盾 그리고 階級鬭爭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두 노선 투쟁이 존재하고, 자본주의로의 복귀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의 장기성과 복잡성을 인식해야 하고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하며, 사회주의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계급모순과 계급투쟁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처리하고, 敵我矛盾과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사회주의 국가는 반대의 길을 가고 변질되어 자본주의가 재현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매년 말하고 매달 말하며 매일 말하여 우리가 이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게 하며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노선을 가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사회에도 자본가 계급 생성의 토양과 조건이 존재하며, 사회주의 사회에도 계급·계급 모순·계급 투쟁이 존재한다는 毛澤東의 이론은 『人民日報』에서 거의 매일 등장하는 메뉴가 된다. 특히 毛澤東 語錄은 『人民日報』 제 1면 우측 상단에 매일 등재되어 階級鬭爭을 일반 대중에게 강조하고 修正主義의 도전에 언론 매체와 사상 학습을 통해 대응한다.

75.6-76.6까지의 무작위 샘플 24개 중에서 20개가 이 ‘無產階級獨裁下的 繼續革命’을 다룬다. 이와 같이 無產階級과 그 無產階級獨裁下的 인민이 자본가 계급에 대하여 행사하는 정치 우위의 階級鬭爭論에 근거하여 관료간의 갈등 처리 수단의 일환인 프로레타리아 文化

6) 『人民日報』, 1976. 5. 19일자, “堅持反修防修 就要同走資派鬭”.

大革命的 목표도 바로 계급 투쟁의 일환임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無產階級 文化大革命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가? 바로 무산계급의 자본가 계급에 대한 계급투쟁이며, 그 초점은 당내 자산계급 즉 走資派에 대한 투쟁이다 ”

라고 못박고 있다. 즉 당내 노선 문제도 ‘敵我矛盾’으로 파악하여 批判, 自我批判이 아닌 ‘肅清’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때 毛澤東 등 이른바 理論派가 내세우는 구호는 “계급 투쟁을 근본으로 삼자(階級鬭爭爲綱)”·“수정주의를 반대하고 수정주의를 방지하자(反修防修)”·“혁명을 움켜쥐고, 생산을 독촉하라(孤革命, 坭生產)” 등이고, 理論派가 내세우는 문제 해결방법은 “自力更生”·“難苦奪鬭”·“大衆路線”·“無產階級理論의 學習”·“重工業優先” 등이며, 이러한 해결 방법의 근거를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찾는다. 문제 해결에서 강조되는 것 중의 하나는 간부역할의 강조이다. 그래서 기업이나 生產隊등 조직체 내의 黨委員會의 지도와 工人 大衆의 희생적 노력이 결합하여 생산력을 제고하는 대표적인 모델인 따칭(大慶) 모델과 따자이 모델을 내세워 “공업은 따칭(大慶)에서 배우고 농업은 따자이에서 배워라”라고 하며 當權派의 經濟優位論에 대한 반대 근거로 이를 계속 강조한다.

한편 當權派는 毛澤東의 정치 우위적 ‘無產階級獨裁下的 階級鬭爭’과는 달리 경제 우위·효율 위주의 ‘唯生產力論’을 철학적 기반으로 하여 ‘階級鬭爭終熄論’·‘階級調和論’ 등, 毛의 정치경제학에 반대되는 實用的이고 현실주의적인 노선을 추구한다. 이들 當權派는 중국이 당면한 문제 상황은 毛澤東의 계급 모순적 상황과는 달리,

- 7) 毛의 이 말은 교조성을 띄고 「人民日報」에 지속적으로 인용된다. 原文은 다음과 같다. 「人民日報」, 73년 10월 1일 자 社論 “...社會主義社會是一個相當長的歷史段階。在社會主義這個歷史段階中，還存在着階級，階級矛盾和階級鬭爭，存在着社會主義同資本主義兩條道路的鬭爭，存在着資本主義復的危險性。要認識這種鬭爭的長期性和複雜性。要提高警惕。要進行社會主義教育。要正確理解和處理階級矛盾和階級鬭爭問題，正確區別和處理敵我矛盾和人民內部矛盾。不然的話，我們這樣的社會主義國家，就會走向反面，就會變質，就會出現復辟。我們從現在起，必須年年講，月月講，天天講，使我們對這個問題，有比較清醒的認識，有一條馬克思列寧主義的路線...

‘物質文化的 需要와 낙후된 生産力 간의 矛盾’으로 인식한다⁸⁾. 이들이 인식하는 사회주의 사회의 모순 체계는 바로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生産力 落後와 산업간의 모순이다. “인민의 날로 늘어가는 물질 문화 수요와 낙후된 사회 생산력 간의 모순”이 사회주의적 개조를 만료한 현시기의 主要 矛盾이고, 階級矛盾은 계급 관계와 경제 관계의 변화로 인하여 모든 제제층에서 부차적 모순으로 그 지위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미 1949년 9월에,

“이후 전면적으로 다루어야 할 임무는 경제 건설이다.
(以後 最全面的任務是經濟)”

라고 천명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개조가 완료되는 1956년에는,

“공후의 임무는 건설이다. 현재 계급 모순은 기본적으로 해결되었다.(今後的任務就是建設. 現在階級矛盾, 基本上解決了)”

라고 하여 階級鬭爭消滅論을 내세우고 1962년에는,

“현재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식량을 증산하는 것이다. 단지 증산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던 상관없을 것이다. 검은 고양이건 흰고양이건 쥐를 잡는게 좋은 고양이가 아니겠는가.(現在最重要的問題是多生產糧食, 只要能增產, 單干也可以, 不管黑貓白貓, 捉住老鼠就是好鼠)”

라고 하는 유명한 ‘黑描白描論’을 내세운다. 이들 當權派는 또한 “공산당은 계급 투쟁을 제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로 계급 단결을 주장한다!” 라고 하며 階級調和論을 내세운다.

이들 當權派가 인식하는 생산력 발전의 요인은, 물질 자극, 이익 보장, 장려 제도 등으로서 사유 경작권을 포함하는 ‘三自一包’를 생산력 낙후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한다. 이들은 毛澤東의 自力更生·難苦奮鬭방식의 생산 전략보다는 기술도입·외자 도입·전문화·개인 소유제의 부분적 인정·다양한 경영 방식의 채택 그리고 시장 경제 원리의 도입 등을 통하여 농촌과 기업을 활성화시키므로써 중국을 현대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毛澤東 등 理論派의 좌경적 오류로서,

“사람과 사물을 보고 정세를 분석하고, 사업을 대하고 경험을 총화함에

있어서 모두 극단론이 존재한다. 일체 긍정하지 않으면 일체 부정, 정치 중시 실무 무시, 생산 중시 생활 무시, 축적 중시 소비 경시, 중공업 중시 농경공업 경시, 양곡만 중시 다중경영 경시, 자력갱생 중시 외국원조 경시”

를 제시하며 黨의 工作 중심이 제국 투쟁에서 사회주의 현대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毛澤東 등 理論派의 絶對的 平等主義가 생성하는 문제점, 즉 “한솥밥을 나누어 먹는 것(大鍋飯)”에서 생기는 낭비와 비능률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득 격차를 인정하는 “相對的 平等主義”를 내세운다.

3. 문제 해결 방법의 차이

毛는 智育·德育·體育 중 體育를 가장 중시한 반면 智育을 가장 경시한다. 毛가 1920년대 초 공산주의 운동에 나서서 최초로 발표한 논문이 바로 체육에 관한 글임도 특기할 만하다. 당시 열강의 침탈을 목격한 지식인들은 서양의 民主主義와 科學이 결코 중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자각하게 되는데, 아편에 중독된 중국 인민에게서 정신과 육체의 건강성이 중국을 열강의 식민지로 부터 구원할 수 있는 길임은 당시 지식인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新青年』이란 잡지를 통한 지식인 운동이 그 한 예이다. 毛는 이러한 계몽 운동에 참여하여, 중국민이 나태와 안일과 몽매함을 벗어나게 하여 새 중국을 창건하는 길은 과학적 지식보다는 투철한 혁명의식이요, 유교적 품성보다는 청년의 발달함과 건강함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毛의 이러한 사상 교육 중시·지식 교육 경시는 4個 現代化를 위한 “智育 第一”을 문제 해결 방법의 하나로 내세우는 當權派와 갈등하게 된다.

대중들이 當權派의 “智育 第一”을 비판함으로써 ‘독서를 하지 않고’·‘문화도 필요없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됨에 따라 교육 부문이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음을 지적하는 當權派에 대하여 理論派는, “‘智育 第一’은 바로 資產階級政治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다”(智育第一就是資產階級政治第一)라고 하여 노선 투쟁적 관점에서 지

8) 「人民日報」, 1975. 7. 15일자, “共產主義精神이 필요하지, 物質刺戟은 필요치 않다”

식 위주의 과학 교육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음을 말한다⁹⁾. 知識第一主義 敎育은 ‘독서에 의해 벼슬을 하고’(讀書做官), ‘지식을 私有로 하여’ 자신이 상품 등급을 제고시키는 수단이 되므로 當權派의 교육 노선은 이러한 자본주의 교육의 계급성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식 교육은 자본주의 교육 노선으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當權派가 달성하려는 ‘4個 現代化’는 과학이나 지식 교육의 방법을 통해서만 안되며 또 지식 교육의 경시는 4개 현대화를 지연시킨다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학교가 학생들의 사회주의적 각오를 제일 중요한 위치에 두지 않는다면, 이것은 과연 자본주의 학교의 본질과 무엇이 다른가? 만약 단지 기술만 이해하고, 思想性이 없는 것만 전공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회주의 학교란 도대체 또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毛는 “두 종류의 불완전한 지식이 있다. 하나는 기성의 책 안에 있는 지식이고, 하나는 감성에 치우치고 국부적인 지식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片面性을 지닌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만이 비교적 완전한 지식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며 지식 위주 교육의 한계성을 지적한다¹⁰⁾.

이러한 ‘사상교육 중시’의 관점에 따라서 理論派는 각 생산단위의 사상교육을 강화한다. 사상 교육은 각 「단위」에 있는 黨 委員會의 주관하에 ‘學習班’을 조직하여 실시한다. 『人民日報』에 소개된 瀘東 조선소 사상 학습반의 운영을 보면¹¹⁾, 學習班은 전문 주제별 토론과 分科 研究를 병행한다. 전문 주제별 토론은 예를 들어 『水滸誌』의 평론을 통해 宋江의 투항주의를 비판하고 이를 수정주의자와의 노선 투쟁에 연계시키는 것 등이다¹²⁾. 分科 研究란 ‘철학·정치경제학·역사·문학·체육·국제 문제’ 등 6개 과목으로 분류하여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瀘東 조선소의 경우, 학습반은 당 위원회의 지도하에, 哲學組에서는 『水滸誌』의 梁山起義軍내부의 唯心主義와 唯物主義간의 투쟁을 연구하고, 政治經濟組에서는 梁山起義軍 내 계급 관계의 변화와 宋江이 투항주의 노선을 추진할 수 있었던 사회 기초를 연구한다. 歷史組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黨史·농민 혁명 등 세 방면에서 혁명과의 투항과의 투쟁을 연구하며, 國際問題研究組는 소련의 자본

9) 「人民日報」, 1975.1.19일자, “「智育第一」就是資產階級政治第一”.

10) 「人民日報」, 1976.1.3일자, “知識敎育은 바로 資產階級정치의 첫 번째 요소이다” “...有兩種不完全的知識, 一種是現成書本上的知識, 一種是偏於感性 and 局部的知識, 這二者都有片面性. 只有使二者相互結合, 才會生產好的比較完全的知識...”.

주의로의 투항 과정·특징·규율 등을 분석한다. 그리고 文學組는 어떻게 마르크스주의의 입장·특징·방법을 가지고 古典文學作品을 평가할 것인가를 연구하며, 敎育組에서는 孔孟之道가 어떻게 투항주의 노선에 복무하는가를 연구한다¹¹⁾.

이러한 사상 위주의 문제해결 방식은 “智育第一”·“科學至上”·“技術第一”을 문제 해결 방식으로 내세우는 當權派와 같등하게 된다. 특히 文革期間에 대학은 수업을 못하고 또 지식인은 농촌이나 공장에 가서 근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었다. 대학은 석박사 과정이 없어졌으며 경쟁에 의한 입시보다는 농촌경험 등 실무경력과 思想性에 좌우되는 등 사상 위주의 문제 해결 방식을 채택한 결과 중국은 현대화의 動力이 될 高級人力의 부족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毛 이후 鄧 행정에서는 이러한 사상 교육은 사라지게 되며 대학의 석박사 과정도 부활하게 된다. 鄧 행정의 이네놀로기 변질에 따라 중국은 과학 기술과 지식을 중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개혁 정치를 통해 精神文明의 汚染을 경험하게 되고 사상의 혼란을 겪게 된다. 그리고 과학 교육의 중시와 더불어 사상 교육의 중요성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음을 『人民日報』의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표-3).

〈표-3 : 『人民日報』의 사상 교육 대 과학 교육 강조 빈도〉

	毛시대	鄧시대
사상 교육	0.85	0.19
과학 교육	0.08	0.43

『人民日報』에 나타난 사상 교육과 과학 교육 강조의 빈도를 비교해 보면, 鄧 행정 시기인 79년 - 89년까지의 『人民日報』 표본 자료 240 개중 과학 교육의 강조는 평균 0.19점이고 사상 교육의 강조는 평균 0.43점으로서 사상 교육이 과학 교육보다 약 2배 더 강조되고 있다.

- 11) 『人民日報』, 1973. 11.15일자, “不脫山간부 學習班을 성실히 운영하자” ; 1975. 11.1일자, “浙江省 江山縣의 勤儉大隊는 理論學習을 전지한 좋은 예이다” 등을 참조할 것.
- 12) 『人民日報』, 1975. 8.31일자, “『水滸誌』 평론을 중시함”; 1975.11.15일자, “『水滸誌』 평론을 이론 학습과 결합시키자” 등을 참조.
- 13) 『人民日報』, 75년 11월 15일자, “評論『水滸』 同學習理論結合起來”.

(毛행정 시기인 71년 6월 - 76년 6월까지의 표본 자료 72개에 대한 평균을 보면 과학 교육이 평균 0.08점이고 사상 교육이 평균 0.85점으로 약 5배가 더 강조되고 있다). 이는 毛 시대의 理論派와 當權派와의 갈등에서 毛가 當權派의 과학 교육 강조만 부각시켜 當權派를 修正主義者로 비판하는 데 이용하였음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當權派가 毛당시의 갈등 상황에서는 毛의 사상 위주의 행정에 대한 대안으로 과학 기술을 내세웠으나, 이들의 집권 후에는 여전히 사상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1989년 6월의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은 사상 학습을 다시 강화하게 된다. 毛시대의 사상 학습 운동인 '雷鋒學習運動'이 재개되고 『毛澤東選集』이 재출간된다. 그러나 개혁 이후 중국의 문제 해결에 毛적인 사상 학습 운동이 효력을 발생하리라고 믿는 중국인은 거의 없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이러한 중국의 딜레마를 몇 가지 인터뷰 내용을 옮겨보면 좀더 분명해 질 것이다¹⁴⁾.

필자 : 천안문 사건 이후 사상 학습이 강조되고 있다는데 吳과장님이 계시는 福建省 냉장고 공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吳과장 : 鄧의 개혁 이후 기업이 自律性을 갖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익숙해 지지 않은 自律性으로 인해 실제로 기업에서는 아무도 자율적으로 결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지시를 기다리는 데 아직도 더 익숙해 있기 때문이지요. 너무 급작스런 分權化·自律化가 문제입니다.

필자 : 그럼 黨이 아직도 기업을 지배한다는 말씀입니까?

吳과장 : 물론이죠. 제가 있는 福州의 공장 근로자 500여 명 중 약 10%가 黨員입니다. 이들이 기업내에서 黨委員會를 구성하여 기업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들 黨委員會는 다른 常委單位로 연결되는 계층제를 이룹니다. 기업의 당 위원회 書記는 상위 당 위원회의 위원이 됩니다. 앞에서 천안문 사태 이후 黨의 통제가 강화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실제로 기업의 黨 위원회 書記는 전에는 근로도 하였지만, 지금은 근로는 안하고 오직 黨 일만 봅니다. 우리 회사는 合作企業이라 통제가 비교적 적은 경우입니다만, 다른 기업은 당연히 통제가 더 심하지요.

-
- 14) 吳泰東씨는 중국 福建省의 대우 현지 공장 책임자로 나가있는 분이다. 1990년 5월에 서울에서 인터뷰하였다.
15) 金成萬씨는 하얼빈 공대를 나온 조선족이다. 그의 한국 방문중인 1990년 9월에 필자와의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국영기업(全民所有制企業)인 吉林 화학의 金주임도 黨의 통제가 강화됨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¹⁵⁾.

김주임 : 吉林화학 내에는 黨 委員會·書記·辦公室·秘密員·基層書記가 있습니다. 사장은 당 위원회의 副書記가 되며 사장과 서기는 상호 감독합니다. 그런데 개혁 이후 젊은 기술 관료 출신의 사장이 기업 활성화를 시도하나, ‘黨性’ 하나로 올라온 黨委의 서기와 갈등하게 됩니다. 毛시대에 黨委가 세었으나 개혁 이후 사장이 더 세게 되었습니다. ‘83년부터’ 88년까지는 사상 교육이 기업내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6.4사태’ 이후(천안문 사건을 지칭) 다시 사상 교육이 재개되는 거죠. 雷鋒學習運動 등 사상 교육이 기업내에서 1주일에 약 2시간 정도 있으나, 그러나 아무도 그것이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여기지는 않습니다.

鄧小平 자신도 개혁 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당면하여 자신의 실수가 黨風 운동과 사상 교육을 소홀히 한 것임을 인정한 바 있다. 毛 시대에는 정부의 역할이 鄧의 개혁 정치에서처럼 확대되지 않았고 사회도 폐쇄적이었으며 또한 관료의 이권 개입 요소도 비교적 적었으므로 사상 교육이 부패·관료주의의 방지에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鄧시대에는 사상 교육만으로는 증대된 국민의 욕구에 대응할만한 행정을 창출할 수 없고 또 부패나 관료주의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또다른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다.

V. 갈등 전략

理論派가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사용한 전략은, 첫째 소련 수정주의 비판에 의한 중국 수정주의자 공격, 둘째, 중국 인민에게 익숙한 中國小說 속의 주인공의 성격을 수정주의자의 특성과 대비하여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 셋째 孔子, 孟子的 봉건주의적 요소 비판 등 과거 중국 내외의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역사적 경험의 활용이다.

1) 소련 수정주의 비판 : 마르크스-엔겔스가 「고타강령비판」을 통해, “국가의 원조”로 무산계급 폭력을 대치하고 “자유국가”로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대치하려고 한 Lassalle의 기회주의적 관점을 비판하고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옹호한 사실에서 마르크스-엔겔스의 권위를 이용하고, 둘째 레닌이 제 2인터내셔널 수정주의자와 러시아의 멘

세비키 등 기회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 마르크스 주의의 무산제급 독재이론과 建黨學說를 발전시켜 강력한 볼셰비키 당과 세계 제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를 건설하였으나 후르시츠포프·브레즈네프 등이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반대하고 ‘平和共存’·‘全民國家’·‘全民黨’ 등 수정주의 오류를 범하여 근본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배반함으로써 볼셰비키 黨이 수정주의의 黨과 파시스트 黨이 된 것을 비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중국의 수정주의 노선을 비판한다¹⁶⁾.

2) 中國 古典 이용: 『水滸誌』·『武訓傳』 등의 中國古典에서 주인공이 보여준 기회주의적이고 투항주의적인 요소를 반대파의 노선에 비유하여 비판한다. 『水滸誌』의 宋江을 계급투항주의자·민족투항주의자로 비판하여 중국의 수정주의 노선을 비판하는 「紅旗」(1975년 제 9기)의 글을 『人民日報』가 그대로 轉載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魯迅의 『水滸誌』에 대한 평론은 옳다. 『水滸誌』는 投降을 정당화한 것인데, 이는 단지 貪官만 반대하고 皇帝에 대하여는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水滸誌』는 梁山 농민의 혁명 기초자인 晁蓋를 108인에서 제외하고 宋江을 극력 찬미하였는데, 宋江이 晁蓋의 봉기 노선에 ‘수정’을 가한 것은 농민 혁명에 대한 배반이요, 이것이 곧 修正主義이다. 바로 대내적으로는 계급투항주의, 대외적으로는 민족투항주의이다.

많은 『水滸誌』 평론에서 宋江의 투항주의를 농민의 局限性으로 본 것은, 階級調和論을 선전한 것이다. 『水滸誌』 연구 중의 階級調和論의 독소를 없애야 한다. 『水滸誌』의 宋江은 『武訓傳』의 武訓같은 유형으로 이미 毛주석이 武訓을 피압박 인민의 계급투쟁을 부정하고 반동 봉건통치자에 투항한 것으로 비판한 바 있다. 階級分析의 관점에서 『水滸誌』를 평가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마르크스주의를 견지하자¹⁷⁾.”

여기서 宋江이나 武訓은 劉少奇·林彪를, 그리고 晁蓋는 毛澤東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水滸誌』의 분석은 수정주의를 마르크스주의에서 벗어나 자본주의에 투항하는 투항주의로 비판하여 수정주의를 반

16) 嚴群, 「學習無產階級專政理論 加強黨的建設」 『人民日報』, 75년 7월 1일자.

대하려는 것이고 이와 같은 『水滸誌』 평론은 각 공장·人民公社 등 각 單位의 사상학습 자료로 활용된다¹⁷⁾.

『武訓傳』은 이미 1951년에 毛가 논문을 발표하여 당시 당내의 자산 계급사상을 비판하는 자료로 삼았었다¹⁸⁾. 毛의 『武訓傳』 비판은 毛의 문예 사상을 나타내는 말인 “無產階級은 과거의 문학 예술 작품에 대하여서도, 그 작품이 인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며 역사상 진보적인 의의가 있는지를 검사하여 이를 구별하는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라는 毛의 문예 사상에 따라 『水滸誌』 평론과 함께 수정주의 노선 비판의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劉少奇的 黑‘修養’ 黑‘六論’ 또는 林彪의 ‘克己復禮’ ‘德’ ‘仁’ ‘忠恕’ 등을 Lassalle·호르시츠포프·브레즈네프 등 소련 수정주의자의 논리와 동일시하여 비판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외에, 孔孟의 克己復禮를 노예제의 잔재로 비판하여 林彪 등을 비판한다. 批林批孔運動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중국의 정치갈등에 있어 古典의 전략적 이용은 독특한 것인데 이는 중국의 오랜 文民政治의 傳統으로 인하여 古典의 권위가 쉽게 정치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文化大革命도 상해 그룹의 이론가인 姚文元の 「海曙破官」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될 만큼 중국 정치에서 古典에 대한 전략적 이용은 빈번하다.

또한 10中全會 이후 孔子의 “克己復禮”를 노예제의 회귀로 재비판하며, 批林批孔運動을 전개한다. 교육 전선과 과학 기술 전선에서 수정주의 또는 ‘走資派’의 복귀를 우려, 수정주의를 孔子의 벼슬을 위한 교육(學而優則仕, 讀書做官論)과 전문가, 권위자를 만드는 과학 기술은 노예제의 복귀라 하여 비판하는 것이다. 孔子·孟子·老子 등의 사상은 자본주의적 노예제를 정당화하는 것으로(“唯上智與上愚不移, 勞心者治人, 勞力者治於人”)보고, 수정주의자·走資派(唯生產

17) 「人民日報」, 75년 8월 31일자, “重視對《水滸》的評論”.

18) 「人民日報」, 75년 11월 15일자는 “評論「水滸」同學習理論結合起來”란 제목의 1면 기사에서 瀘東 조선소의 당 위원회가 「수호지」의 평론을 통해 대중을 교육한 경험을 신고 있다. 「人民日報」 76년 1월 3일자 池恒의 논설 “階級鬭爭을 견고히 하자”에서도 「수호지」 평론이 批林批孔 운동,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론 학습운동 더불어 투항주의에 대한 반대운동의 자료로 활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 「毛澤東選集」, 「應當重視電影「武訓傳」的討論」(1951년 5월 20일).

論者)를 공격한다.

한편 當權派는 毛澤東의 ‘階級鬭爭爲綱’에 맞서 ‘三項指示爲綱’란 구호를 내세운다. 當權派가 내세우는 갈등전략은 바로 “절대불변의 진리란 없다”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본 철학과, “實踐이 眞理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毛澤東의 말을 그대로 원용하여, ‘實事求是’·‘思想解放’ 등의 논리를 내세우는 전략이다. 즉, 毛의 이론과 논리로 理論派의 논리를 반박하는 전략이 當權派의 갈등 전략이다.

VI. 平等과 效率의 調和

공산주의가 내세우는 구호 가운데의 하나가 “사회주의의 우월성”이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인 빈부의 격차와 노동 소외를 극복하고 분배적 정의와 인간성 회복을 가능하게 해 주는 요인으로서 공산주의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에 대한 제한을 내세운다. 계획 경제에 의한 공동 생산·공동 분배 그리고 비경쟁성과 공동체 의식을 통한 이기심의 극복으로 인간화를 완성하는데 국가가 개입하여 公共善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개인의 이기심 극복과 자기 희생이라는 공산주의 사상이다. 즉 자본주의적인 물질 자극에 의한 동기 부여보다는 심리적이고 정치적인 인센티브를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와 사회의 價値構造를 변경시킬 수 있다고 본다. 『人民日報』에 보이는 反물질자극에 대한 논설을 몇 가지 인용해 보자. 「수정주의 반대, 수정주의 방지를 위해 이론 학습을 출선수범하자」(75년 6월 1일 자)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현 단계는 全民所有制와 集團所有制가 존재하고 아직 상품 경제가 실행되고 있다. 여기서 화폐는 사회 財富과 자산제급의 생활 양식을 부추키며 자본주의 복귀의 골간으로 작용한다...모르는 사이에 ‘현금 제일주의’ ‘물질자극 만능’의 풍조가 생긴다...그러므로 黨의 기본 노선 교육을 진행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선전하고, 修正主義·자본주의 경향·자산제급 권익적 관념 등을 비판하여 새로운 부르조와 사상을 제거해야 한다. 그 구체적 예는 프롤레타리아 계급 정치 우선·물질 자극 반대·남비 반대·근검 절약 제창 등이다...”

라고 하여 물질 자극·황금만능주의를 비판한다. 「共產主義精神이 필요하지, 物質刺戟은 필요치 않다」(75년 7월 15일 자)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기업의 영도권은 마르크스주의자와 노동자 대중에게 있어야 하며, 劉少奇 등의 노선을 따르는 물질 자극·이익·제일·장려금 제일주의 등은 大慶油田의 예에서 보듯이 사회주의적 생산 제고 방식이 될 수 없다. 大慶油田에서도 과거 장려금 제도를 시행했으나, 근로자간에 不團結과 돈에 따라 일하는 고정관념만 조장했을 뿐이다... 마르크스의 「고타강령비판」을 학습한 후 劉少奇·林彪 류의 물질 자극·장려금 제일주의는 라사얼의 “분배 결정론”임을 알 수 있었다. 林彪의 「黑筆記」에서 “물질자극은 필요한 것”이라던가 “노동에 따른 분배(按勞分配)와 물질 이익 원칙은 생산 발전의 “決定的 動力”임을 주장하는데, 이는 개인 소비품의 분배를 생산 발전의 결정적 동력으로 삼은 것으로서, 마르크스의 「고타강령 비판」에서 비판한 기회주의적 관점인 것이다...”

라고 하여 물질 자극적 생산 증대 운동의 기회주의적 속성과 분배 결정론을 비판하는 한편 자기 희생적 공산주의 정신의 성공 예인 大慶油田의 경우를 그 대안으로 내세운다.

한편, 공산주의의 사상 자체인 黨과, 혁명 정신으로 무장된 黨 간부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지도적 역할을 다할 때 국가는 평등주의를 실현할 수 있고 아울러 개인의 희생적 노력과 자발성 창의성으로 인하여 자본주의의 경쟁 원리에 의한 생산성보다도 더 높은 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내세운다. 즉 자본주의가 평등과 효율의 양립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효율성에 치중하는데 반하여 사회주의는 평등과 효율의 조화 가능성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다. ‘革命과 建設’ 또는 ‘以紅帶專’이라는 구호가 바로 평등과 효율의 조화를 내세우는 용어들이다.

毛가 내세우는 평등과 효율의 조화에는 反제국주의도 포함된다.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과 기술의 의존은 결국 경제적 예속을 가져와 평등이라는 이념을 무색하게 하므로, 毛는 自力更生 또는 難苦奮闘 그리고 대중 운동에 의한 자립 경제로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한

20) Harry Harding, *China's Second Revolution: Reform after Mao* (Washington D. C. :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7), chp.2. 에서 Harding은 毛의 업적으로 비물질주의와 관료주의의 배격을 든다.

다. 이와 더불어 毛가 강조하는 것은 물질주의와 관료주의의 배격이다²⁰⁾. 최소한의 소비와 절약 그리고 인내를 통해 소비재 생산보다는 생산재 생산에 치중하는 중공업 우선 정책을 택한다.

毛의 非物質主義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정치 소설인 劉亞洲의 「天安門廣場」²¹⁾에 보인다. 중국에는 양변기가 드물고 화장실 문화가 어이없음을 천안문 광장의 공중 변소를 본 사람은 실감하게 되는데 이는 毛가 “화장실이 편하면 타락하게 된다.”라고 하였다는 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毛에게 평등과 효율 중 어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毛는 효율보다는 평등을 택할 것이다. 그래서 毛에게 있어서 평등과 효율의 조화도 ‘평등의 성취로 효율을 가져온다’는 ‘以紅帶專’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다.

평등과 효율의 조화를 성공시킨 예로서 毛는 大慶油田의 공업 방식과 따자이 운동의 농업 방식을 내세우는데 이와 유사한 방식의 성공 케이스를 『人民日報』는 수시로 보도하며 효율 위주의 경제 정책을 주장하는 관료들의 잘못된 노선을 비판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표본 추출한 毛 시대의 72개 『人民日報』 자료 중 약 30%에 해당하는 24개가 大慶油田과 따자이 농업 운동과 유사한 성공 사례를 보도한다.

이와 같은 毛의 평등과 효율의 조화는 지식 위주의 전문가(specialist)보다는 혁명 의식이 투철한 당 간부(generalist)에 의해 주도되며 당 간부가 지식 위주의 행정 관료를 감독하고 일반 대중을 동원한다. 이때 批判과 自我批判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대중이 직접 관료를 통제하는 조직 운영 메카니즘을 채택한다.

평등을 이념으로 내세운 毛 행정이 과연 어느 정도 평등을 이루었으며, 그 한계성과 문제점이 무엇이나 하는 것은 학자들의 관심이 아닐 수 없다. 洪斗承 교수에 의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의 비공에

- 21) 劉亞洲는 중국문단에서 개방화의 기수로 평가된다. “文革은 한마당 희극”이라고 하며, 중국의 현실을 직시하려는 劉는 「天安門廣場」이란 정치소설 이외에 「악마가 전쟁을 지휘하다」 「내일의 전쟁」 「안와르 사다트의 죽음」 「붉은 여단의 공격」 「진정 위대한 두 세대」 등의 중장편소설에서, 국제전략문제와, 혁명세대와 혁명후 젊은 세대들이 군과 관련하여 겪은 역사적 갈등 등 중국의 현실 문제를 다룬다. 박재연 역, 「天安門廣場」(서울: 동아일보사, 1990)을 참조할 것.
- 22) 洪斗承, 「中共社會의 脫階層化: 이데올로기적 평등주의지향과 그 한계」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3권 제2호,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21-122.

도 불구하고 1966년 文化大革命이 일어난 이래 1976년 四人幫이 몰락하게 될 때까지의 약 10년간은 비교적 순수한 형태의 평등주의의 실험실적 상황이 중국 사회에서 벌어졌다고 한다²²⁾. 毛의 평등 이념에 따른 脫階層化 노력은 그의 집권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49년 건국 이전의 모든 사회의 계층적 질서는 이들 질서가 바탕을 두었던 경제적·사회적 자원의 集産化를 통하여 새로운 사회 질서에 의해 대체되었다. 毛는 농업 중심의 중국 사회에서 불평등 및 계층화의 근원인 토지 제도의 개혁과, 도시에서의 자본가들의 생산 수단이었다던 기업과 공장의 國有化 등 이른바 '사회주의적 개조'를 통해 脫階層化를 시도하게 되고 이러한 시도는 1956년 까지 일차적으로 완료된다. 1949년 이전의 사회적·직업적 직위에 따라 계급의 명칭이 개개인에게 부여됨으로써 資本家·地主·舊國民黨 간부·지식인 등 9개 계급을 “가장 나쁜 9개의 출신 성분”(臭老九라 한다)으로 낙인찍어 경멸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공식적으로 인민의 敵으로 규정하여 통제를 가하였다. 반면에 근로자나 貧農은 출신 성분이 좋은 층으로 평가되어 사회적 대우를 받게 하였다.

이러한 毛시대의 脫계층화와 평등주의적 노력은 鄧의 개혁 정치에 제약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는 필자가 중국 吉林省 吉林化學의 重型機械研究所 주임인 金成萬씨와의 대담에서 얻은 결론이다. 鄧의 경제 체제 개혁으로 개인 상공업자(이를 個體工商戶“꼬어티 꾸시앙후”라 한다)가 많이 생겨나고 이들의 수입이 국영 기업(全民所有制企業)의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높아 이들을 부러워하고 또한 이들의 높은 소득이 빈부격차의 한 원인이 됨을 알고 있던 필자에게 金씨가, “중국에서는 개별 상공업자가 全民所有制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이를 그대로 옮겨보기로 한다.

필자: 개인 소유제의 확대로 생긴 「個體工商戶」가 중국에서는 선망의 대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全民所有制 企業에 들어가기를 희망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金주임: 全民所有制 企業이 안정된 직장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상공업자는 비록 돈을 많이 벌지만 시달림을 많이 받기 때문에 번 돈을 全民所有制 企業에 내고서라도 들어가려 합니다.

필자: 시달림을 받는다니 누구한테 시달림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金주임: 관청으로부터 시달림을 받지요. 가령 택시를 운영하는 개인상공업자는 세무서·경찰서 등에서 차를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어야 하며

또 이들이 출퇴근할 때 태워달라고 하면 태워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세금을 많이 물거나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상공업자는 인제 경기가 나빠져 손해를 보게될지 몰라 불안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은 돈 많이 버는 이러한 개인 상공업자를 무시합니다. 돈 벌어 이익 남기는 일은 떳떳지 못하게 생각하며, 資本家는 나쁜 계층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달림을 받지 않고 또 평생 직장을 보장받기 위해 개인 상공업자는 돈을 全民所有制 企業에 내고서라도 직장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金주임과 같은 맥락의 말은 人民銀行의 한 직원²³⁾과의 대화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필자 : 중국에서는 개혁 후에도 왜 기대한 만큼의 생산성이 오르지 않습니까?

葉小岩 : 중국인의 멘탈리티가 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文革때에는 '돈버는 것은 썩이다'라는 사고가 만연 했었죠. 남쪽은 생산성이 높습니다. 남쪽 사람들은 文革의 소용돌이에 비교적 덜 휘말렸기도 합니다만, 남쪽지방은 非物質主義的 사고가 덜 합니다. 그런데 북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을 천대시 합니다. 북쪽의 부모는 자식이 가라오거나 식당같은 걸 하는걸 싫어합니다. 여자도 상대가 개인업으로 돈 버는 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중국인의 의식구조가 금방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개념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회의 구성원이 다르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에 유학 중인 중국인을 통해 알 수가 있다.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를 한 수출입은행의 鄭完吉 과장은 자신의 미국 대학 급우인 한 중국 학생이 회계학을 배우는데 "利益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한 학기가 걸렸다"라고 하더라며 중국 사회를 우리가 이해하는 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있을 거라고 한다.

경제적 보상 체계에 있어서는 1956년에 소련식의 임금 제도가 도입되어 행정 관료들에게는 20개 이상의 봉급 등급이 매겨지고, 기술자

23) 1990년 9월 필리핀의 아시아 개발은행(ADB)에 나와 있는 中國 人民銀行의 엘리트직원인 葉小岩과의 인터뷰. 그는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제반 현상을 굉장히 잘 분석하여 설명하여 주었다. 필자는 葉선생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자본주의로 향할 가능성이 많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들에게는 17개 등급 그리고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8개 등급이 마련되어 이들 등급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그 이외에 작업 능력에 따라 포상과 보너스가 지급되었다.

50년대 말에 大躍進運動이 전개되면서 산업 조직에서 능력급이 억제되고 일부 정부 고위층의 봉급이 삭감되는 등 변화를 겪었지만, 이러한 체제는 文革시까지 계속되었다.

文化大革命이 시작되면서 모든 능력급과 보너스·포상제 등이 없어지고 일부 관리층은 일시적으로 강등되거나 감봉 처분을 받았으며 노동자 출신 등이 주요 지위에 크게 진출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농민에서 부총리까지 오른 陳永貴이다. 劉亞洲의 소설에서는 陳永貴의 진출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한 山邱의 농민으로 태어났으나 농작물을 잘 거둔 덕분에 毛澤東의 눈에 들어 로케트를 탄 것처럼 썩 하니 구름 속을 뚫고 하늘로 올라갔다. 縣·市·省·國務院 등의 자리를 그냥 뛰어 넘어 中央政治局 委員을 거쳐 副總理의 자리에까지 올라 20세기의 기적을 창조했다. 그가 흰 양 수건을 동여매고 무명 홀투루마기를 입은 채 중국의 정치무대에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혁명이라는 창녀는 다시 한번 능욕을 당했다.”

文革 이후의 脫階층화 정책으로 중국사회의 舊엘리트 계급과 그 자손들이 중국 사회에 융화되어 생활할 수 있는 근거가 박탈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새로운 정치 지도자층이 누려왔던 특권과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공격이 가해졌다. 지식인·사무직 종사자·共産黨黨務者 등 정선 노동자는 정기적으로 농촌에 내려가 육체 노동을 하는 이른바 「下放政策」을 통해 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의 감소를 시도하였다. 또한 자본주의적 사조인 물질주의와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이 강화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영화 『芙蓉鎮』에서 보듯이 평등주의 정책의 부작용을 가져왔으며 文革의 이러한 과격성으로 인하여 毛사상은 정치, 경제적 오류를 범하게 되고 마침내 중국 사회주의에서 脫마오이즘이라는 이데올로기의 변질을 초래하는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Riskin은 毛의 평등주의 정책으로 毛시대의 중국이 방글라데쉬·인디아·파키스탄·스리랑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유

고슬라비아 등 대부분의 다른 나라보다 부유하게 되었으나 1981년도 도시 가계의 약 10%가 연간 소득 50불 이하임을 지적하며 여전히 중국에 빈곤이 상존함을 결론으로 밝힌다²⁵⁾. 이는 毛의 이념에 따른 평등과 효율의 동시추구가 ‘平等속의 貧困’이라는 문제를 생성하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써 갈등을 야기할 요인이 되며 毛의 사상에 대한 반대 이념인 효율위주의 이데올로기가 그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볼 때 毛의 평등과 효율의 조화를 위한 구호인 ‘革命과 生産’ 또는 ‘以紅帶專’·‘又紅又專’은 동원 체제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서李文永 교수가 그의 학위논문에서 밝힌 북한의 권력 변동 요인 중 바로 “지배하는 힘 밑에서의 효율”에 해당한다. 그리고 毛의 大躍進運動이나 文化大革命은 바로 평등과 효율의 조화가 공산주의 사회에서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공산주의 체제의 정당성 위기를 가져와 마침내 毛의 ‘평등과 효율의 조화’란 이데올로기는 효율위주의 이데올로기로 변질되게 된다.

Ⅶ. 결 론 : 毛시대의 갈등이 보여주는 含意

1. 권력 투쟁 수단으로서의 이데올로기

중국 행정은 평등과 효율의 부조화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원인 귀인과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며 갈등을 벌이는 관료 집단 내 두 세력의 관료 정치로 파악하였다. 이 두 세력은 어느 한 세력이 주도권을 잡을 때, 그 세력이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에 맞는 정책을 형성하게 되고, 두 세력이 비슷한 권력을 지닐 때, 정책은 두 집단간의 타협의 산물로 나타난다.

그런데 1949년 건국 이후 毛澤東이 주도하였던 시대에는 毛澤東과 그의 정치 라이벌인 劉小奇·鄧小平 등이 이데올로기나 정책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립적인 견해를 보임으로써 어떤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정책 시행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권력 투쟁의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毛澤東 당시에는 그의 정치적 라이벌인 劉小奇·鄧小平 등

25) Carl Riskin, *China's Political Economy: The Quest for Development since 1949*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 250.

을 수정주의자·走資派로 몰아 숙청하였고, 특히 毛澤東시대의 말기인 1976년 천안문 사건 이후 鄧小平은 “회개할 줄 모르는 제일 약한 走資派”로 매도된다.

그러나 毛澤東 사후 鄧小平이 華國鋒·葉劍英 등과의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후(1976-1978) 黨의 기본 임무가 階級鬭爭에서 4個 現代化의 완성으로 바뀜을 공식 선언하고, 개혁 개방 정책을 추구하며 특히 경제 분야에서 시장 경제 원리의 도입·물질적 인센티브제 도입 등 급진적인 정책을 추구하며, 毛澤東의 文化大革命을 ‘大災亂’으로 공식 규정하는 등 毛澤東의 이데올로기적 위치를 강등시켜 ‘脫마오이즘’을 추구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그 자신은 急進改革派의 右傾化를 경계하여 ‘우경화 반대’란 구호와 함께 ‘네 가지 기본 원칙의 견지(堅持四項基本原則)’를 일관되게 내세웠다. 이것은 단지 보수 세력의 도전을 막기 위한 修辭的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鄧小平의 확고한 신념이었음이 1989년 6.4 사태 이후에 증명되고 있다. 鄧小平은 집권 후 어느 한 순간도 脫社會主義路線을 언명한 적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鄧小平의 기본 이데올로기는 ‘마오이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공식적으로 표명되는 이데올로기와 실제로 추진되는 정책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지만, 그리하여 학자들도 공식 이데올로기만 가지고 변화를 분석하는 위험성을 지적하지 만²⁶⁾, 그러나 鄧小平 政權 이후 나타난 保革의 갈등도 결국 ‘毛思想’의 테두리 내에 한정된 것이었다. 毛澤東思想은 너무 광대한 것이어서 지금으로서 毛澤東思想의 평가는 시기상조일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중국의 공식 이데올로기는 毛澤東시대 毛澤東의 毛思想과 鄧小平 정권이후 鄧小平의 毛思想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모순 해결로서의 정책과 理念으로서의 정책

중국 행정에 있어 毛澤東思想은 그 자기 예언적 완성이나 논리의 전제로 작용하여 앞으로의 중국의 행정 관료와 인민을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神話로서 존재하여 왔다. 모든 결과를 전제 하에 놓고 거기에 자기 자신은 물론 관료와 인민의 생각과 행동이 일

26) John Bryan Staar, *Ideology and Culture An Introduction to the Dialectic of Contemporary Chinese Politics*(New York : Harper & Row, 1973), pp.1-20.

치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毛澤東思想이 신화로 작용하는 조직에서 그 구성원은 그 조직에 위협이 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어렵게 된다. 특히 그 문제가 毛澤東思想의 기본 가정과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毛의 정책도 실패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문제 제기자가 등장한다. Argyris의 조직 학습 이론에서 보듯이 조직은 학습하게 된다. 그것도 두 가지 형태의 학습인데, 하나는 단일 회로 학습 체계(single loop learning)이고, 다른 하나는 이중 회로 학습 체계(double loop learning)이다. 일반적으로 조직에서는 단일 회로 학습 체계가 만연되어 있는데, 이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실패의 씨앗일지라도 조직 전체에 확산되어 있다. 그 이유는 확립된 관행이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관행 의존은 경제력이고 또 편리하며, 특히 ‘和’를 존중하는 중국 행정 문화에서 구성원들이 침묵을 유지하거나 거론의 불씨를 제거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또한 毛澤東思想이 중국 행정을 지배하게 되는 이유 중의 또다른 하나는 정책의 실패를 毛澤東思想의 노선 잘못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毛澤東思想의 기본 가정에 도전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반대 엘리트(counter elite)의 노선 잘못으로 귀인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毛澤東 시대의 노선 갈등과 鄧小平 시대에 있어서 좌파의 정치적 몰락에도 불구하고 좌파 노선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즉, 중국 정치 행정의 특징을 이루는 ‘갈등-조정-갈등’의 연속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한 중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설명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행정을 ‘표면적 합의의 내면적 파벌 현상’으로 보는 루산 파이(Lucian Pye)는 합의와 일치성이라는 절대 명제와 특수한 개인적 관계에 의한 개인의 신분과 안정 보장을 추구하는 중국인의 특성이 중국 정치 전반에 지속적으로 긴장과 갈등을 야기시켜 온다고 본다²⁷⁾. 이른바 ‘관시(關係)’를 중시하는 중국인의 문화적 특성이 상호 보호와 자기 이익의 유지를 위해 작용하게 된다는 문화 결정론적 입장이 그것이다.

둘째, 중국에서는 한 정치 세력이 일시적으로 거세되어도 그 잠재적 세력이 관료 조직 내외에 계속 남아있게 되어 갈등의 잠재력이 지속되기 때문으로 보는 입장이다. 徐鎮英 교수는 이를 1970년대에 劉

小奇나 鄧小平의 정치적 실각에도 불구하고 實用主義路線과 정책의 영향이 지속되고, 마침내 몰락한 반대 세력이 재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찾고 있다²⁷⁾. 즉 左派나 實用主義路線과 정책은 毛澤東이나 鄧小平 같은 소수의 정치 엘리트의 견해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사회의 여러 계층과 지역의 이해 관계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좌파 노선이나 實用主義路線을 대변하던 정치 지도자가 사라진 후에도 장기간 그 영향력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천안문 사건 이후 보수파가 다시 주도권을 잡은 예에서도 다시 입증되는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두가지 설명은 모두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루산 파이의 문화 결정론적 입장이 아니더라도 유교·문화적 전통 속에 마르크스주의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화 갈등적 속성이 관료들에 내재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심리적 요인의 강조는 중국 정치에 있어 정책 결정적 요인과 이데올로기의 작용을 간과하는 점이 있다. 정책 변화는 파벌 형성에 의해 가능하지만, 체제 유지 능력 제고나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사회의 다양화·복잡화가 타협의 산물인 정책의 변화로 작용한다는 주장은 일면 수긍을 하면서도 과연 鄧小平 이후 4개 현대화를 위한 이데올로기가 타협에 의한 것보다는 훨씬 더 右적 경향을 띤 것이 아니냐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경제 개혁 정책에서는 과연 이것이 자본주의로의 회귀가 아닌가의 논쟁이 있을 정도로 여러 공산주의 국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시장 경제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鄧小平 이후 정책 변화는 경제 정책 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가 아무리 다양화되고 복잡화되어도 아직 다양한 이익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多元의 社會로의 이양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多様な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多黨制 등의 제도화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세력의 역할 강조는 무리가 있다. 여전히 정치 엘리트(정책 결정자)의 역할이 중국 정치의 주요 변수임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27) Lucian Pye, *The Dynamics of Chinese Politics*(Cambridge, Massachusetts : Oelgeschlager, Gunn & Hain, Publisher, Inc., 1981).

28) Jin-Young Sou, *The Tachai Campaign and China's Rural Policy*,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1980.